

손잡은 안철수·김한길 “인재 영입에 신당 명운 걸겠다”

안신당 세불리기 속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이 7일 안철수 의원 측 신당 합류를 선언하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수락하는 등 안 의원의 세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또 이날 당사 브리핑룸을 우선 개방하고 전날 마감한 당명 공모의 응모작 중 최종 후보작을 공개하는 한편 8일에는 ‘원년멤버’ 대규모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통해 3가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당 협력 이외에 최고의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민생과 격차해소에 모든 정치의 중심을 맞추는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부터 공동 행보를 하기로 하고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성명도 발표했다. 아직 양측의 직책이나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집합이라고 해야 할 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합류가 다양한 갈래로 신당창당을 추진 중인 신당과 간 ‘소(小)통합’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신당파와의 통합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소속 전정배 의원을 비롯한 신당파와도 가까운 사이이다.

기존 탈당세력 외에도 권 전 의원을 비롯한 동교동계와 정대철 전 의원을 포함한 옛 민주당 세력인 구(舊) 민주계의 더민주 탈당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날 안 의원 측 신당 창당을 위한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수락했다. 한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안 의원과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첫 공동행보 北 핵실험 규탄 성명

안철수 원년멤버들 오늘 회동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직 수락

한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로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캠프 국정자문단에서 활동하고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선 평가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또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일신빌딩의 당사 브리핑룸에서 비노(비노무현)계 전문가 포럼인 ‘국민공감’ 인사들의 신당 참여 기자회견 했다. 당사 내부 공사와 집기 설치 등이 10일 완료될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안 의원 측은 이날 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을 우선 개방했다. 이어 당명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날 마감한 당명 공모의 응모작 중 최종 후보작 3~5개를 우선 공개했다. 안 의원의 원년멤버 규합 작업이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안 의원 측은 탈당 직후부터 원년멤버의 재결합에 공을 들여왔으며, 오는 8일 대규모 회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2012년 대선캠프인 ‘진심 캠프’ 등에서 활동한 멤버들이 오는 8일 저녁 서울 마포 모처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행사 규모는 최대 6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도 신당 창당을 함께 준비 중인 인사들을 비롯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 금태섭 변호사, 이상갑 변호사 등 안 의원과 한때 소원해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안 의원이 참석해 첫 창당을 중도에 포기했던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향후 신당의 비전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참석자들 모두 새정치라는 가치를 공유했던 분들로, 정치 변화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서 오세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오른쪽)이 7일 마포구 신당 당사에서 국민공감포럼 신당 참여 기자회견과 북한 핵실험 관련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전열 정비” 안신당 “하필 이때”

北 핵실험 반응 미묘한 온도차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양측은 공히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초당적 협력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북한의 4차 핵 실험 사태가 야권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우선, 탈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성(守城)에 치중하는 더민주의 북 핵 문제에 온통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열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당내 분열 사태 등이 일정 정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측 관계자는 “아무래도 북 핵 실험으로 당내 탈당 이슈가 덜 조정 받을 것이며 10일로 예정된 안철수 신당 발기인 대회도 주목도가 떨어질 것”이

라며 “북 핵 이슈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분열을 막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오는 10일 발기인 대회 등 신당 창당의 ‘컨벤션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당장 이날로 예정됐던 안 의원의 도라산 일반전초(GOP) 방문이 핵 실험 사태 여파로 취소됐다. 국방부가 부대 사정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에서는 더민주와의 차별화가 정쟁 유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보이고 있다. 대신 이번 일을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북 핵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국제사회 공조 등 구체적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새 로고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로고를 공개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로고의 오른쪽 윗부분에 날리는 깃발은 민주주의의 ‘모’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색깔인 푸른색을 중심으로 연두색과 녹색계열을 가미했다. 손 위원장은 “자유와 평화, 진리, 정의를 상징하는 민주주의의 깃발”이라며 “4가지 색의 네모는 국민을 바라보는 창으로, 때로는 깃발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인 로고는 서울여대 한재준 교수가, ‘민주 네모’의 디자인은 명지전문대 김주성 교수가 제작했다. 전통주 ‘화요’,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 등의 글씨를 쓴 캘리그래퍼(글씨 예술가) 강병인 씨도 글꼴 제작을 자문했다. 손 위원장은 새 로고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로고와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에 “(네모는) 단순한 도형이지 않느냐. 민주당의 ‘모’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핵잠수함·F-22 스텔스기 등 美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논의”

국방부 “北 핵실험 한미 공동 대응”

한미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오후에는 직접 만나 회의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기 등이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전략자산을 언제 전개하느냐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첨단 무기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미 양국은 작년 8월 북한의 지하·포격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됐을 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했다.

한미 양국 군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촉하며 대북 공조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미국 합참의 케네스 맥켄지 전략기획본부장도 이날 한국을 방문해 임오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전략적 수준의 위협을 다루는 직책이다. 임 본부장과 맥켄지 본부장은 북한 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한중 양국 국방부 사이에 설치된 핫라인(직통전화)로 통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 국방부는 작년 말 직통전화를 개통했고 한미군 국방부 장관과 장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첫 통화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3차 핵실험 때보다 위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본격적인 수소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 실험에서 수소폭탄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증폭핵분열탄’을 사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증폭핵분열탄 이번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다”며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합참의 케네스 맥켄지 전략기획본부장도 이날 한국을 방문해 임오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전략적 수준의 위협을 다루는 직책이다. 임 본부장과 맥켄지 본부장은 북한 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한중 양국 국방부 사이에 설치된 핫라인(직통전화)로 통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 국방부는 작년 말 직통전화를 개통했고 한미군 국방부 장관과 장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첫 통화를 했다.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의료광고심의필 제15204-증-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